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台洛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재)청주한씨장학회, 제2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시조묘역에서 59명의 후손에게 5,050만원

명문후손의 긍지와 목표의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台商 이사장, 장학생들 격려

(재)청주한씨장학회(이사장 태락)는 지난 5월 20일(토)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소재 시조부군(휘, 蘭)의 묘전에서 태락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장학생, 학부모 등 100여명의 일가와 관계자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대학원생 4명, 대학생 38명, 고등학생 17명 등 59명의 장학생에게 총 5천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은 식전행사로 시조부군에게 고유제(조현관 태락 이사장, 아현관 근우부회장, 종현관 관우자문위원, 집례 종호제전부회장)를 봉행한 후 주요 참석임원 소개, 경과보고, 태락이사장의 인사, 추대고문의 격려사에 이어 장학증서 수여, 장학생대표(서울대학교 의학과 한지혁)선서,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임원들과 학부모들이 장학생들에게 축하와 함께 면학을 격려하고 장학생들은 학업에 정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청주한문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태락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시조부군의 묘전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함에는 우리의 뿌리와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 청주한문의 시조이신 위양공부군은 1,000여 년 전에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제2회 장학증서 수여식 기념

에서 태어나셨고 큰 뜻을 품고 청주지역으로 이전하여 용개 뜰을 개척하고 무농정을 세워 영농을 권장하고 향학을 일으키셨으며, 서기 928년 고려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병사에게 군량미와 음용수를 제공하고, 몸소 출정하여 삼한통합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이다. 이에 문하태위(국무총리급)의 벼슬에 올랐고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청주라는 본관을 부여받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시조부군의 음덕으로 조선조에 여

섯 분의 왕비를 비롯해서 수많은 상신과 공신, 대제학 등을 배출하였고 잘 아는바와 같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3연속 국무총리가 한문에서 배출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 재계, 학계, 문화, 사회, 종교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훌륭한 선조님의 긍지를 이어받아 목표를 세우고 정진 노력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서 한문을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 앞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해서 많은 후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학생 여러분들도 사회에 진출하면 큰 관심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를 하고 장학재단의 기반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해주시는 임원분들과 일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으며, 추대고문은 훌륭한 후진 양성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장학기금을 조속히 확충해서 명실상부한 청주한문의 장학재단으로 발전시켜나가고 독려하였다.

(재)청주한씨장학회는 2021년 12월 기본재산 33억 5천만원의 기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36억 9천만원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주한씨의 시조이신 태위위양공(諱 蘭)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서기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듬해 평양을 정치기반으로 삼기위한 첫 사업으로 평양성을 쌓을 때 그 막중한 소임을 맡아 태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를 쌓았고, 928년(태조 11년)에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정벌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군까지 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최고의 품계(品階)인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으며, 벼슬은 정일품 문하태위(門下太尉·국무총리급)에 올랐으며 한 시대의 사표로서 훌륭한 이름을 남기시고 서세하시어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나라에서 위양(威襄-천지는 신묘(神妙)한 위광(威光)으로 강산의 기이(奇異)함을 만들고 영웅(英雄)의 자품을 타고나서 나라의 훈업을 이루었다)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장학생 대표(서울대학교 의학과 한지혁.회양공파 33세) 선서

장학기금 출연기부금 계좌 안내
국민은행 009901-04-171067
예금주 (재)청주한씨장학회

시조 「태위위양공」 부군 탄신제 봉행

시조탄생유지 청한각 경내에서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4월 29일(토) 가뭄을 해소하는 반가운 봄비이지만 불편한 일기임에도 갑수명예회장, 태락중앙회장을 비롯 승남.달섭 감사, 동희.선교.윤동.길수.삼랑.상락회장 등 전국 각지에서 7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부군의 탄생유지인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청한각 경내에서 계묘년 시조 태위위양공부군의 탄신제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길수서원군과회장, 아헌관에는 승남감사, 종헌관에는 상식이사, 축관은 동석일가가 각각 분방되었으며 종호제전부회장의 집례로 진행되었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갑수명예회장님과 경향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청한각 건립

경위에 대한 안내와 함께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갑수명예회장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이어 시조부군께서 탄생하실 때 인근 30리의 산과 흙이 땀을 흘렸다하여 토한(土汗)이라 지어 불렀는데 이는 하늘이 내 큰 아이가 태어났다는 뜻이고 큰 사람을 낳는데 하늘이 도와 산과 흙(土)에서 땀을 흘렸다는 뜻이다. 이어 토란에서 난곡으로의 지명 변천사 및 유래를 설명한 후, 큰 뜻을 품고 청주지역으로 이주하여 향학을 일으키고 용개평야를 개척하여 부농을 이루었으며 고려 태조왕건을 도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워 최고위직인 삼중대광 문하태위의 벼슬에 오른 신 훌륭한 분이다. 이후 시조부군의 음덕으로 고려조와 조선조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왕비와 부마, 상신, 공신, 대제학,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는



시조부군 탄신제 봉행

등 최고의 명문가임에 청주한문의 후예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갑수명예회장은 시조탄생유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국에 계신 많은 일가분들의 동참과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소회를 밝힌 후, 이곳 청한각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석재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이고 가장 수

려하게 석비각을 세웠다. 앞으로도 100년, 500년이 지나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최고의 명문가 후손으로서 이곳 청한각을 위시해서 선조님의 유지를 기리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유물과 유적을 성심으로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기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제례 봉행 후에는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담소와 덕담을 나누는 정겨운 식사자리를 함께하였다.

문성대왕 춘계 대제 봉행



문성대왕 대제 봉행 기념

지난 4월 24일 (음 3월 5일) 기자조선(후조선)을 건국한 문성대왕 기자(文聖大王 箕子)를 추모하는 춘계제향이 태락회장, 추태고문, 이재영 증평군수, 우종환 증평새마을금고이사장을 비롯 청주한문과 증평군 관내 유림 및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1리에 소재한 기성전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태락청주한씨중앙종친회장, 아헌관에 이재영증평군수, 종헌관에 우종환증평새마을금고이사장, 축관에 동권중앙회제전위원이 분방되었으며 종호중앙회제전부회장의 집례로 봉행되었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창한 봄날에 기성전에서 문성대왕 대제를 봉행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과 특

히 이재영증평군수님과 우종환새마을금고이사장님을 비롯해 제향봉행을 위해 성원을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이어 우리민족은 혈연을 중시하고 나라사랑과 충효사상을 중시하며 이어오고 있다. 우리 청주한문은 문성대왕으로부터 기원하여 마한 무강왕과 원왕의 둘째 아드님이신 우량의 후손인 지원의 삼남이 시조부군으로 청주한문은 역사가 유구한 삼한갑족의 후예이고 매년 음력 3월 5일에 문성대왕 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곳 기성전에서 제례를 봉행함에는 1913년에 기성전사당을 이축해 주신 한응각선조님의 공로의 덕이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일가분들이 관심을 갖고 제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인바 일가와 관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문간공(諱 尙敬.12世)부군 600주기 기신제 봉행



문간공부군 기신제 봉행 기념

진접읍 금곡리 신재(信齋)사당에서

문간공과종회(회장 석구)는 지난 4월 26일(음 3월 7일) 석구회장, 태락회장을 비롯하여 문간공하 종파회장 및 일가 등 150여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진접읍 금곡리소재 신재사당에서 문간공부군의 600주기 기신제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석구문간공과회장, 아헌관에 태락중앙회장, 종헌관에 영우양평공과회장, 축관에 동훈일가가 분방되었으며 종호 중앙회 제전부회장으로 집례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으며 특별히 600주년을 맞아 문간공하 종파회장 및 대표자가 차헌관으로 봉무하였다.

석구회장은 주요 참석임원을 소개한 후 인사말을 통해 문간공선조님의 600주년 기신제를 봉행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쌀쌀한 날씨임에도 경향각지에

서 많이 참석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함을 전하였다. 한편 지난 6월 5일에는 석구회장 등 많은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문간공 배위의 기신제를 봉행하였다.

문간공(文簡公.諱 尙敬.12世.1360~1423)부군은 조선 개국공신으로 이조판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우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하신 문신이시며 글씨를 잘 쓰셨다.

할아버지는 평간공 호부상서 휘 공의(諱 公義)이고, 아버지는 문경공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 휘 수(諱 脩), 어머니는 길창군(吉昌君) 권적(權適)의 따님이며, 배위는 마한국대부인 해주오씨(馬韓國大夫 海州吳氏) 이시다.

64세로 졸하심에 나라에서 제문과 부의의 예에 따라 미두(米豆) 한지 등을 내렸고 영세부조(永世不祧)의 전례를 내렸다.

무강왕·왕비 계묘년 춘계 대제 봉행

성종대왕비 공혜왕후 549주기 기신제 봉행



무강왕·왕비 춘계대제 봉행 기념

익산시 석왕동 대왕릉에서

초헌관 인석팔봉왕릉종친회장, 아헌관 갑수대전회장, 종헌관 만교장도공파회장 무강왕(武康王)과 무강왕비의 2023년 계묘년 춘향대제가 중앙종친회(회장 태락) 및 팔봉왕릉종친회(회장 인석) 주관으로 지난 5월 4일(음력 3월 15일) 오전 전북 익산시 팔봉면 석왕동 소재 익산쌍릉(益山雙陵)의 무강왕릉에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대제는 태락회장과 인석회장을 비롯하여 승남·달섭감사, 동희·선교·윤동·길수·석구·삼랑·동경회장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하였으며, 초헌관에는 인석팔봉왕릉종친회장, 아헌관에는 갑수대전시종친회장, 종헌관에는 만교장도공파종친회장, 축관에 갑전서울청장년회장이 분방되었으며 종호제전부회장의 집례로 진행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의 전한 후 봄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조상과 선조님의 유지를 받들고 유적을 수호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참여함은 보람 있고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민족은 뿌리와 역사적 기록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이곳은 마한의 태조 무강왕릉이자 북원(태원)선우씨, 청주한씨, 덕양(행주)기씨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정사기록과 청주한씨의 족보에도 명확

하게 기록이 되어있고, 우리는 매년 3월 보름날 이곳에서 무강왕과 왕비의 춘계대제를 봉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해서 익산시와 청주한문이 대립하며 갈등을 이어오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익산은 마한 왕조의 중심이고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기록은 찾아볼 수도 없다. 익산시는 서동과 선화공주로 역사를 왜곡하고 도로명을 무왕로로 변경하여 명명하고 이곳 무강왕릉도 무왕릉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이다. 우리는 무강왕수호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익산시를 상대로 강력 대응함으로써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고 역사 왜곡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히고 무강왕릉을 수호 보전하는 사업추진에 전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韓)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운 태조(太祖)이며,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王)의 둘째 아들 우량(友諒)이 상당(上黨)한씨(청주한씨)가 됨으로써 청주한씨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이며 명문중의 명문이다. 원왕의 장남 우평(友平)은 북원(北原, 太原) 선우(鮮于)씨가 되고 3남 우성(友誠)은 덕양(德陽, 幸州) 기(奇)씨가 되었다.

파주 삼릉 경내 순릉(順陵)에서

조선9대 왕 성종의 원비인 공혜왕후(恭惠王后) 한씨(韓氏) (1456~1474)의 제549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5월 9일(일)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자리한 삼릉(사적 제205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내 순릉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순릉봉향회주관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도영일가(사진, 충성공파)가 참여하여 아헌관으로 제례를 봉행하였다.

공혜왕후는 영의정 상당부원군 충성공 휘 명회(領議政 上黨府院君 忠成公 諱 明澮)의 딸로, 1474년 왕비로 봉해진 지 5년 만에 창덕궁 구현전에서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 해 6월 7일 현 위치에 안장되었다.

비각에 보호된 비석은 1817년 9월에 세운 것으로, 전면에 '조선국공혜왕



도영일가(아헌관)

후순릉'이라 새겨졌다. 봉분을 감싸고 있는 12칸의 난간석은 태조의 건원릉, 태종의 현릉 난간석을 본떠 만든 것이다. 병풍석을 세우지 않았을 뿐 조선 초기의 능제와 비슷한 형태이다.

파주 삼릉 경내의 공릉은 공혜왕후의 언니인 조선 8대 왕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한씨(章順王后 韓氏, 1445~1461)의 능이다.

양혜공(휘 伯倫, 14세) 549주기 기신제 봉행



양혜공부군 기신제 봉행

양혜공파종친회(회장 도수)는 지난 4월 24일(음 3월 5일) 후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마전로 172-30소재 양혜공묘역에서 양혜공부군의 549주기 기신제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양혜공(휘 백륜, 1427~1474)은 통정대부 강원도관찰사, 대광보국승정대부 의정부 영의정겸 경연부원군에 추증된 휘 창(昌)의 아드님으로 1446년 사문직장으로 관직에 출사하여 의빈부도사, 공조정랑, 오위도총부 도총관 등 여러 관직을 제수 받았으며, 1468년 예종의 즉위로 따님이 왕비(안순왕후)에 책봉됨에 따라 국구 및 부원군으로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올랐고, 예종원년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추증정난의대공신에, 1471년 성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좌

리공신으로 생애 2회의 공신에 책록되었다.

1471년(성종 2) 우의정으로 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에 진봉되어 충성공(휘 명회), 양절공(휘 학), 공안공(휘 치인), 장도공(휘 치의), 고령군(신숙주) 등과 함께 국사를 논하며 경술에 능통하여 왕명으로 경연(經筵)을 관영하였다. 청백리로 성품이 관후·검소하였으며, 시호는 양혜(襄惠)이다.

공의 묘소는 인천 서구 마전동 병좌 임향(만수산 인근 북향)에 안장되었으며, 1981년 공의 묘역 보수작업 중 양혜공의 일대기를 적시한 지석 5점이 출토되어 인천 시립박물관에 보관 전시 중이며, 묘역과 재실 및 신도비는 인천시 기념물 제54호로 등록되어 현재 역사문화공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양혜공파종친회 총무 재운)

【선조님의 묘소를 찾고 있습니다】

아래 선조님의 묘소를 알고 계신 분, 연락주시면 후사 하겠습니다.
【공안공파, 15세 세검(世儉)·16세 몽남(夢男)·17세 충경(忠敬)】

연락처 : 공안공파 참판공 후손 한상하 (☎ 010-5205-6557)

청암 한봉수의병장 제139주년 탄신제 봉행

지난 5월 12일(금)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한봉수의병장유지지에서 청암 한봉수의병장 제139주년 탄신제를 개최하고 한봉수의병장의 업적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탄신제에는 민구고문(전 국방부장관), 태락중앙회장, 손애진 충북남부보훈지청장, 김제홍 기념사업회장, 장기영 광복회충청북도지부장, 행사관계자와 청주시민,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의례, 공적보고, 기념사 및 축사, 장학증서 수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제홍회장은 기념사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과거의 역사를 망각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역사는 우리 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 기념사업회에서는 앞으로 의병장님의 애국애족정신과 사상에 대한 연구뿐 만아니라 이의 확산 전파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한봉수의병장 동상 앞에서, 민구고문(중앙 좌) 태락회장(중앙 우)

유적탐배 프로그램, 의병장관련강좌 등의 교육사업, 다양한 활동 등으로 지역주민과 유해지 방문객들께 의병장님의 항일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데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손애진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은 축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나라사

랑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구고문은 유족을 대표하여 많이 참석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관계자와 시민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였고, 태락중앙회장은 청주한씨의 시조이신 위양공부군께서 항학을 일으키고 고려 태조왕건의 후삼국 통일에 크게 기

여하는 등 훌륭한 치적으로 활동하신 이곳 청주지역에서 한봉수의병장의 제139주년 탄신제를 봉행함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청주한씨중앙총친회에서 더 큰 관심과 성원으로 한봉수의병장님의 업적과 숭고한 애국정신이 더욱 빛나고 기리 전승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관계자분들과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봉수 의병장은 1884년 충북 청원군 내수읍 출신으로 충청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워 무적장군으로 명성을 날리고 33회 전투로 수십 명을 사살하는 등 성과를 올렸으며, 1919년 손병희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복역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공훈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한봉수의병장은 제44대 국방장관을 역임하신 한민구중앙회고문의 조부이다.

인천광역시총친회 정기총회 개최

결산·예산(안) 승인 및 흥렬 신임회장 선임

인천광역시총친회(회장 천식)는 지난 5월 30일(화) 11:30 미추홀구 송의동 소재 송의가든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한 후 임원 개선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천식회장 후임으로 흥렬회장(양해공파 34세)을 선임하였다.

흥렬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많이 참석해 주시고 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내빈과 종친회 임원 및 회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한 후 임원분들의 지도와 성원의 덕으로 종친회의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놓은 이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다. 시 종친회 총무일을 15년 동안 해왔고 한인산악회 총무일을 10여년 동안 해옴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 자리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뛰면서 일가들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 적소에 안배하여 발전하는 종친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임원 및 일가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임 천식회장과



흥렬회장이 취임인사를 하고있다

창석미추홀구회장에게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중앙종친회 태락회장과 근준, 일용부회장, 재철이사가 참석하여 종친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회장 이취임에 대한 축사와 격려를 보냈다.

(인천시총친회 회숙 사무국장)

삼강(三綱)에서 綱字 뜻 버리강으로 바꿔야

‘강요 아닌 술선수범 실천’ 주장 한영호 선생 저서 발견

43년 전 삼강오륜 부록 한글소학 출간...전국서 계몽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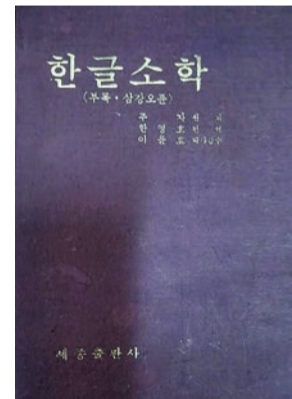
단군할아버지 가르침과 함께 교과서 반영되면 모뎀 기대

중국 대유학자 주자(朱子) 저서에 나오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삼강(三綱 = 父爲子綱·君爲臣綱·夫爲婦綱)에서 綱字를 기존의 뜻 근본강이 아닌 버리강으로 해석해 40여년 전 출간한 책이 뒤늦게 발견돼 주목을 받고 있다.

전직 교사이자 국사편찬위원으로 활동 중인 곡성군 오곡면 한영호(83) 선생은 최근 1980년 12월 20일 출간한 한글 번역본 한글소학(243페이지·세종출판사)을 40여년 만에 우연히 발견하고 뜨거운 희열을 경험했다.

43년 전 발간한 이 책에는 중국 대유학자 주자(朱子) 저서에 나오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삼강(三綱)에서 綱字가 그동안 근본강으로 해석됐으나 버리강(그물을 끌어 올리는 큰 줄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석은 진취적이고 술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현대사회에 걸맞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교직에 몸을 담았던 한 선생은 당시 이 책을 펴내고 전국의 유·초·



1980년 발간한 한글소학

중·고는 물론 대학교와 교육단체, 연구소, 교육부까지 교과서 해석을 바꿔야 한다며 손수 계몽활동을 벌였다. 한글소학에 나온 풀이를 보면 삼강(三綱)에 나온 綱字를 버리강으로 해석하면 어른들이 술선수범 하여 따르게 되고, 근본강으로 해석하면 어른들은 불문하고 아이들에게 강요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교과서에 반영될 경우 小學 번역판 한글소학은 국보급 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호 선생은 “세월이 흘러 잊혀질 때도 됐지만 우연히 발견된 40여년 전 책을 살펴보니 술선수범 리더의 덕목으로 더 절감하게 한다”면서 “綱字를 책상위에 세워놓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모두가 행복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5면 하단에서 계속)

경남지역 선조문화 유적 탐방기

경남종친회(회장 만준)는 지난 6월 10일, 만준회장, 인수사무국장, 회원 16명과 부산동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선조 없는 우리 없다’는 청주한씨 중앙종친회의 종훈을 받침 하듯, 경남지역에 큰 업적을 남긴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을 찾아 그분들의 삶과 흔적을 느끼고 체험하는 탐방 여행을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일정에 따라 마산역을 출발한 일행은 먼저,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에 있는 몽계공 철중 할아버지를 모신 재실인 망송재에 도착했다. 관명(몽계공과 사무국장)의 안내에 따라 재실을 둘러보고, 몽계공파에서 제공한 막걸리로 목을 축였다.

관명 사무국장에 따르면, 몽계 철중의 할아버지 련은 보문관대제학이었고, 아버지 희적은 예의관서였다. 철중은 고려 충숙왕 신유년(1321)에 출생하여 충혜왕 2년(1341)에 생원시에 장원급제하고, 공민왕 3년(1353)에 문과급제 하였으며 전법관서(현 법무장관)를 역임하였다. 불사이군의 절의로 두문동으로 숨어들었다가 고려가 멸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개국을 인정하지 않은 두문동 72현에 속했던 할아버지는 조상의 모든 것을 북쪽으로 남겨두고 부모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이동하여 현 용지리에 거처를 정했다고 한다. 아들은 4명을 두었는데, 조선의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고자 각각 경북 고령과 상주, 강원 춘천에 흩어져 살게 했다고 한다. 철중 할아버지의 묘소에서 참배객 모두는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했다.



망송재 방문기념

두 번째 탐방지는 진주시 신안동 석갑산에 있는 병사공 범석 할아버지를 모시는 재실 영모재였다. 우리 일행이 도착하기도 전에 정우(문정공파 병사공 종중회장)님이 먼저 와 계셨다.

정우님에 따르면, 범석 할아버지는 조선 현종 13년(1672)에 출생하시어 영조 20년(1743)에 졸하시었다. 숙종 21년(1695)에 무과에 급제하여 함경북도병마수군절도사, 황해도,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며 48년간 봉직하였다. 정우님의 안내로 실내를 둘러보았는데, 할아버지의 많은 업적들이 사진으로 있었고, 특히 임금님으로부터 1개의 교지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라는데 할아버지는 8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한 것인지 11개나 있었다. 특히 영모재는 국가보훈처에 의하여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관리가 잘 되어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웠다. 후손으로 독립유공자 치문(26세)과 애국지사 필동(29세)이 있다.

국립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는 범석 할아버지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어 위업을 재조명하기도 했다. 한 참배객이 말하기를, 병사라고 모두 병사가 아니라 진주 ‘한 병사’, 구미 ‘장 병사’, 밀양 ‘손 병사’는 조선의 3대 병사로서 당대 모든 백성이 인정한 구국 공신이라 했다. 정우님의 안내로 일행은 진주시 나동 신율리 병사공 묘소를 참배했다. 정우회장은 안내만도 고마운데, 참가한 모든 회원들에게 진주 특산물 산딸기 1박스씩 선물했다.



영모재 방문기념

세 번째 탐방 코스는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에 있는 돈암처사를 모시는 재실인 천산재였다. 천산재에 도착하기 전 평촌리 마을에 있는 정수공원에 들렀다.

정수공원은 돈암처사 조기 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공원이었는데, 넓은 부지에 여러 개의 비와 열녀비가 세워지고 숲이 우거져 있었다. 한 눈에 청주한씨의 위세가 얼마나 당당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기인(전 경남종친회장)님의 설명이 있었다. 돈암 할아버지의 휘는 승리이고, 자는 수지인데, 총자위 부사직으로 조정에 몸담다 연산군의 난정을 보고 개탄하여 영달의 길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진주에 정착하여 숨어 지냈다고 한다. 후에 공의 종질이 경상감사로 내려와 서울로 갈 것을 권유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초야에 묻혀 지내며 흑시라도 명성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했다 한다. 스스로 호를 돈암이라 칭하였는데, 주역의 돈세 무민의 뜻을 취한 것이라 했다.

청주한씨들이 진주 일원에 세거하게 된 것은 돈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대표적 후손으로 몽일과 몽삼이 있는데, 몽삼은 조은선생이라 불렀고 ‘조은집’이 남아 있다. 그 후손은 시중과 시현, 시회, 시구가 있는데, 벼슬을 지내고 좌승지 등에 추증되었다. 그 후손으로 석진과 석우, 필세, 익세, 영

세, 태세가 있는데 모두 벼슬을 지내고 호조참판 등에 추증되었다고 했다. 그 후손으로 진주의 8도병마절도사 범석(22세) 할아버지가 있었다. 천산재 탐방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청모재로 향했다.

홍립(삼등공파 후 선공종중회장)님에 따르면, 청모재는 삼등공 후선(9세손)을 모시는 재실인데, 경기도 화성군에서 300년(약 1700년) 전 창원시 동읍 송정리에 입향조로 세거하게 되었다고 했다. 청모재 앞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김해로 이어지는 국도가 있고, 뒤로는 어복산이 있어 명당임이 분명해 보였다. 청모재 뒤 어복산에 입향조 후선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가 가지런하게 위치하고 있었다. 삼등공파에서 실상 할아버지가 통정대부(군자감정)를 역임하셨고, 석양(25세)이 통정대부(병조참의), 흥인(26세)이 예문관 부제학을, 동극(28세) 가선대부를 역임하셨다. 근세에는 형구(32세) 경남지방의 시장과 군수, 홍준(32세) 창원시 고위 관료, 성근(33세) 부산시 고위 관료를 지냈다고 했다.

홍립님에 의하면 어복산은 약 9천 평으로 조상의 묘를 모시고 있고, 창원시 동읍 봉산리에 삼등공파 후선공종중이 관리하는 땅이 약 4천 평 있는데, 그곳에서 연간 일천만원의 세수가 들어온다고 했다. 부자 종중이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중이 제공한 시원한 수박을 먹고 저녁 식사를 위해 진영읍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에 갈증 내지는 허전함을 느끼며 산다. 필자는 청주한씨 정랑공파 첨정공파 32세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조상들의 유적과 위업에 갈증을 느껴왔다. 그러나 이번 경남지역 선조문화 유적 탐방은 필자의 갈증을 한방에 시원하게 날려 주었다. 필자가 그러할진대, 이번 선조문화 유적 탐방에 참가한 회원들은 모두 청주한씨에 대해 자부심을 키웠음이 분명하다.

끝으로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여 경남지역 청주한문을 푹푹 뭉치게 하고, 자랑스러운 삼한갑족의 가문임을 다시 한 번 각인 시켜준 청주한씨 경남종친회 만준 회장님, 행사를 진두지휘한 인수 사무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글 상목 전 고성고 교장)



정수공원 방문 기념

삼강(三綱)에서 綱字 뜻 버리강으로 바뀌어

〈4면 하단에 이어〉

한편 충효를 중심으로한 인성교육 선구자이자 향토문화발전에 정열을 쏟아온 한영호 선생은 1940년 전남 무안군에서 태어나 목포사범대학, 전남대 철학

과를 졸업한 뒤 교직에 몸을 담았다.

이후 자녀들이 어릴 때 곡성과 인연을 맺고 오곡면 구성리 대원정사 창건주인 부인 이원례(85) 보살님의 내조를 받으면서 국태민안(國泰民安)과 자손번영(子孫繁榮)을 염원하며 생활 중이다.

한 선생은 특히 태극기를 연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마크인 태극문양이 의미를 크게 벗어난 채 만들어졌다”며 수정 운동을 벌였고, 홍익인간 이념을 담은 ‘시조 할아버지의 삼백 예순 여섯가지 가르침’을 풀이한 해설판을 초판 인쇄 7년만인 2018년 재출간했다.

(글 곡성일보 김래성기자, 6월 21일자)

운영회비(4~7월)		단위:원
이름	금액	
규백 부회장(회양공파회장)	1,000,000	
도수 부회장(양해공파 회장)	1,000,000	
두환 부회장(이랑공파 회장)	1,000,000	
일용 부회장(참판공파회장)	1,000,000	
정민 부회장(정해공파회장)	1,000,000	
종업 부회장(경기 남양주시)	1,000,000	
진수 부회장(검교참판공파 회장)	1,000,000	
효근 부회장(절도공파직장공 회장)	1,000,000	
갑수 부회장(대전시회장)	500,000	
광전 부회장(경기도회장)	500,000	
근우 부회장(세마공논산중회장)	500,000	
종호 부회장(제전부회장)	500,000	
찬규 부회장(충의공파회장)	500,000	
추태 상임고문	300,000	
광수 자문위원(서울 영등포구)	200,000	
구현 자문위원(절도공파직장공중중)	200,000	
기인 자문위원(경남 창원시)	20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200,000	
영수 자문위원(서울 서대문구)	20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강화군)	200,000	
승남 감사(광주 북구)	200,000	
경석 겸임이사(서울 강남구)	200,000	
도영 겸임이사(인천 중구)	200,000	
동협 겸임이사(경기 평택시)	200,000	
시근 겸임이사(충무 부장)	200,000	
순자 겸임이사(부녀부장)	200,000	
영섭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200,000	
인섭 겸임이사(경기 광명시)	200,000	
종원 겸임이사(인천 계양구)	200,000	
창수 겸임이사(제주도 서귀포시)	200,000	
총환 겸임이사(충북 청주시)	200,000	
규아 운영위원(경기 김포시)	200,000	
기형 겸임이사(세마공논산중중)	100,000	
세동 겸임이사(세마공논산중중)	100,000	
갑창 운영위원(전북 전주시)	100,000	

경모 운영위원(제주 제주시)	100,000
상기 운영위원(충의공파)	100,000
합계	14,900,000

일반친조헌성금(4~7월)		단위:원
이름	금액	
태락 중앙회장	200,000	
근준 부회장(조직부회장)	200,000	
삼량 부회장(수석부회장)	200,000	
청한산악회	200,000	
길수 자문위원(서울 광진구)	100,000	
상락 부회장(서울시회장)	100,000	
성익 부회장(문정공파회장)	100,000	
일용 섭외부회장	100,000	
병량 겸임이사(경기 의정부시)	100,000	
윤동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100,000	
삼녀(서울 관악구)	50,000	
합계	1,450,000	

개인정보비(4~7월)		단위:원
이름	금액	
년석(전북 정읍시)	200,000	
경환(서울 금천구)	100,000	
삼량 부회장(수석부회장)	100,000	
상갑(서울 강동구)	100,000	
종현(충남 금산군)	100,000	
차식(부산 사상구)	100,000	
총일(경남 김해시)	100,000	
공석(경기 용인시)	50,000	
기인 자문위원(경남 창원시)	50,000	
동영(경기 군포시)	50,000	
만택(서울 강남구)	50,000	
민교(충남 천안시)	50,000	
삼봉(울산 중구)	50,000	
상돈(충남 청양군)	50,000	
상철	50,000	
상하(서울 송파구)	50,000	
수창 겸임이사(성동,광진구회장)	50,000	

원교(서울 송파구)	50,000
추태 상임고문	50,000
기수(전북 임실군)	30,000
상욱(경북 상주시)	30,000
석준(광주 광산구)	30,000
신재순	30,000
양섭(경기 남양주시)	30,000
영상(경기 양평군)	30,000
영섭(전남 나주시)	30,000
영수(광주 광산구)	30,000
용관(서울 송파구)	30,000
재영(대구 수성구)	30,000
종윤(전남 나주시)	30,000
진수	30,000
충수(충북 진천군)	30,000
강현(충남 아산시)	20,000
광전 부회장(경기도회장)	20,000
기영(경남 사천시)	2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20,000
길수(세종시 전통면)	20,000
도영 겸임이사(인천 중구)	20,000
동협 겸임이사(경기 평택시)	20,000
두섭(충남 아산시)	20,000
만석(서울 중랑구)	20,000
문섭(경기 여주시)	20,000
병덕(서울 강북구)	20,000
봉수(광주 남구)	20,000
상근(충남 서천군)	20,000
상덕(서울 서대문구)	20,000
상수(충남 서산시)	20,000
상진(충남 태안군)	20,000
상협(경기 시흥시)	20,000
성희(경남 김해시)	20,000
시근 겸임이사(충무 부장)	20,000
양현(광주 서구)	20,000
임대근(서울 은평구)	20,000

정서(서울 강북구)	20,000
재술(전북 김제시)	2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강화군)	20,000
태문(경기 수원시)	20,000
찬규 부회장(충의공파회장)	20,000
상기 운영위원(충의공파)	20,000
무희(충의공파)	20,000
종찬(충의공파)	20,000
택규(충의공파)	20,000
복규(충의공파)	20,000
계희(충의공파)	20,000
동희(충의공파)	20,000
관희(충의공파)	20,000
상은(충의공파)	20,000
양수(충의공파)	20,000
문석(충의공파)	20,000
충수(충의공파)	20,000
장규(충의공파)	20,000
문수(충의공파)	20,000
신희(충의공파)	20,000
문희(충의공파)	20,000
합계	2,630,000

단체정보비(4~7월)		단위:원
이름	금액	
세마공논산중중	300,000	
검교참판공파(진수)	200,000	
낙안공중중(복섭)	200,000	
대전시총친회	200,000	
수원평해공중중	200,000	
양해공파중중	200,000	
송탄총친회(수동)	100,000	
합계	1,400,000	

장학기금 납부내역(4~7월)				단위: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122	기인(경남 창원시)	10,000,000	50,500,000	
합계		10,000,000		

청한산악회 친목야유회 및 정기총회 개최

1박 2일 간, 목포 · 신안일원으로

청한산악회(회장 삼량)는 지난 6월 24일 삼량회장, 태락중앙회장 등 38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의 일정으로 목포와 신안일원으로 친목도모와 결속을 다지는 단합야유회를 다녀왔다.

첫 번째 탐방지인 신안의 퍼플섬, 두리~박지 구간 547m와 박지~반월 구간 915m를 합쳐 모두 1,462m의 보랏빛 다리인 퍼플교를 비롯해 섬 전체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는 컬러마케팅을 통해 반월도와 박지도라는 작은 섬에서 세계가 감탄할 만한 보랏빛 성지로 조성된 퍼플섬은 2021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

정된 곳이다.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와 유달산과 북항에 스테이션을 두고 북항~유달산~고하도를 운행하는 길이 3.23k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관광 케이블카다. 다도해의 금빛 낙조와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고하도의 산책길과 바닷길을 둘러본 일정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곳이다. 이어 목포해안가의 갯바위 등을 둘러본 후 뜻 깊고 즐거운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한편 첫날 저녁 식사 전에 제26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경과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수·지 결산(안)을 승인 가결하였다.

삼량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장 앞에서

있었지만 선조님의 음덕으로 건강하게 회원분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가운데 단합야유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감사함을 전하고, 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중앙회 종사운영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산악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독려했으며, 태락중앙회장은 청한산악회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일가분들이 참여하고 호연지기와 화합돈목을 실현하는 표본 친목모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격려했다.

단위장학회장 및 시도회장과 장학생 기념사진



태락 중앙회장과 장학생



추태 광천공회장과 장학생



근우 세마공회장과 장학생



광 시와공회장과 장학생



길수 국산공회장과 장학생



관우 판관공회장과 장학생



규백 회양공.중수 감사공회장과 장학생



명수 교위공.삼랑 부회장과 장학생



복섭 낙안공.장훈 서범공회장과 장학생



동경 부산.갑수 대전회장과 장학생



광전 경기.선교 충성공회장과 장학생



태락회장(중앙).달섭감사(좌).승남감사(우)

청주한씨장학회 장학생

단위장학회 광역시도	장 학생	학교 명
중앙회	한재흠	세종대학교 지능기전공학과 1학년
	한승훈	서울예술대학교 영상학부 1학년
	문관우	경북대학교대학원 미술학과 2학년
	한수연	부산보건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한상민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 1학년
	한예호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3학년
	한승훈	용인대학교 동양무예학과 4학년
	홍성민	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과 4학년
	이종혁	김포제일고등학교 1학년
	한수빈	예일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광천공	박지혜	로체스터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이지운	카톨릭동대대학교 항공경영물류학과 4학년
	김재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신소재공학과 2학년
	김예지	동의대학교 한의학과 1학년
	최호림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세마공	한수빈	충남대학교대학원 분석과학기술학과 1학년
	한수정	성신여자대학교 기악과 1학년
	이선유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한준서	성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년
시와공	한기백	천안공업고등학교 2학년
	한도경	광주광남고등학교 3학년
	유동재	가천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 4학년
	김명진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1학년
	이혜원	카톨릭대학교 국제법정경제열 1학년
국산공	박용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이채현	창문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상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학부 1학년
	방세정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1학년
판관공	한상준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배시우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1학년
	한성준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2학년
감사공	한민석	양서고등학교 3학년
	한주희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 1학년
청암공	한효정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년
	한지현	인하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2학년
회양공	한유민	목천고등학교 2학년
	한지혁	서울대학교 의학과 4학년
직장공	박규동	서울대학교대학원 물리학과 박사과정
	한수연	사동고등학교 1학년
대구-경북	한재운	서경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충정공	한택규	강원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교위공	한경민	뉴욕대학교 부동산학과 3학년
청파공	한진규	남서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서범공	장지윤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낙안공	한강녕	대림대학교 로봇지동화공학과 1학년
대전시	서건영	도안고등학교 2학년
	한디연	여주제일고등학교 2학년
부산시	박시현	경기대학교 관광문화콘텐츠학과 1학년
한인(인천)	한예성	부평고등학교 2학년
충성공	백한울	상지대학교 생활조형디자인학과 3학년
서울시	김이건	단국대학교 의학과 1학년
	민세인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1학년
	지서현	공항공고등학교 3학년
경기도	한나경	성결대학교 기독교교육상담학과 2학년
	이채영	효양고등학교 1학년
전라북도	허재훈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대구경북	한요섭	JOHNS CREEK 고등학교
강원도	한지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경상남도	한승현	명신고등학교 1학년

한훈(韓焄) 통계청장, 농림식품부차관에 임명 거시경제에 밝은 경제정책통

지난 6월 29일 윤석열 정부 첫 통계청장인 한훈(사진, 1968년생)일가가 농림식품부차관에 임명되었다.

전북 정읍 출신의 한 차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2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근무를 시작해 농림해양과 예산총괄, 복지전략, 민간투자정책, 지식경제예산 등 정책·예산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공공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주일 대사관 재정경제관으로 근무한 경력에 파견 근무를 통해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등도 역임했다. 지난 정부 말기에 기재부 차관보를 지내고,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통계청장에 선임돼 최근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올해 3월에는 유엔 통계위원회 부의장,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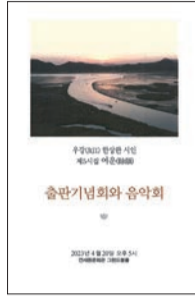


한훈차관

기구(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에 각각 선출돼 국제통계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 전북 정읍(54)
- ▲ 서울대 경영학과졸 ▲ 행정고시 합격(35회)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 재정경제원 국고국 ▲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예산총괄과 ▲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 재정전략실 복지전략팀장 ▲ 세계은행 공공분야 전문가 ▲ 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장 ▲ 예산실 지식경제예산과장 ▲ 장기전략국 전략기획과장(부이사관) ▲ 주 일본대사관 재정경제관(부이사관)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책관 ▲ 정책조정국장 ▲ 경제예산심의관 ▲ 차관보 ▲ 통계청장

友江 한상완 시인 출판기념회와 음악회 제5시집 여운(餘韻), 연세동문회관에서



우강(友江) 한상완(韓相完)시인(연세대학교 명예교수.박사.중앙회 자문위원)의 다섯 번째 시집 <여운>의 출판기념회와 음악회가 지난 4월 20일(목) 오후 5시 신촌 소재 연세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출판기념회와 음악회는 시인 우강의 인사, 시 낭송. 우강의 시 세계(평론가 유성호 한양대 인문과학대학장), 기념음악회,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악회는 백설(피아노)과 강지현(첼로) 반주로 소프라노 김성혜, 소프라노 유소영, 바리톤 송기창, 테너 이정원 등 4명의 성악가가 우강이 작사하고 작곡가(김광자, 김성희, 김은혜, 김진우, 박경규, 박영란, 이안삼, 이재석, 임금수, 정덕기)의 작품인 11곡을 불렀고, <여운>(한상완 작시, 임금수 작곡)은 테너



한상완시인

이정원이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1941년 12월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한상완 교수는 연세대학교 도서관학을 전공하여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제경제연구원(KIEI) 수석연구원/정보실장,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을 거쳐 1991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문과대 부학장, 학생복지처장, 연구처장, 연세옴부즈맨, 교육대학원장, 부총장 등을 역임한 후 2007년 2월에 정년퇴임했다.

이후 2년간 정부의 부름을 받아 봉사하고, 2009년 10월에 시 전문지 <심상(心象)>에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시를 써 온지 15년 동안 시집 <편지>(2010), <그대는 나의 별>(2012), <불꽃>(2016), <환생>(2020)에 이어 <여운>(2023)을 출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문희 사장 취임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 만들것”

지난 7월 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11대 사장에 선임된 여주출신 한문희 (전)부산교통공사 사장(사진)이 “안전 최우선의 전방위 혁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를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히는 취임식을 시작으로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어 “국민과 이용객에게 코레일의 저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명확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한 후 “최근 철도 사고는 국민들이 코레일의 철도 운영 능력을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등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한문희 사장이 밝힌 주요 경영 방향으로는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한 조직 역량 집중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통한 재정건전화 및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중심의 고객 서비스 혁신 ▲미래 핵심역량 구축 ▲자긍심 넘치는 직장 구현 등이다.

코레일은 계속된 철도사고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E(아주미흡)’



한문희 코레일사장

등급을 받는 등 내부사기는 극도로 저하된 상태이며, 특히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철도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이 받은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도 한문희 사장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꼽힌다.

한문희사장(1963년생, 여주)은 철도고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한 후 1984년 철도청에 입사해 서울지방철도청에서 근무하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이후에도 철도청에 몸담으며 ▲경영혁신실 실장 ▲인사노무실 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8년 의왕 ICD 대표이사과 2021년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지냈다.

30년간 철도에 몸담은 정통 철도 전문가라는 점에서 사장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사기가 꺾인 내부 결속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天植(회양공파 前회장) · 翼熙(양혜공파부회장)

종묘대제 아헌관으로 봉무

천식 인천종친회장(회양공파)과 익희양혜공파부회장이 지난 5월 7일 문화재청과 종묘제례보존회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지정된 종묘대제(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에 각각 영녕전 8실(덕종대왕·소혜왕후)과 영녕전 9실(예종대왕·안순왕후)에 아헌관으로 봉무하여 제례를 봉행하였다.

종묘대제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올리는 제례 의식으로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묘(宗廟) 정전과 영녕전에서 봉행되



사진 좌측 익희부회장, 우측 천식회장

는데, ‘정전’의 보수공사 진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영녕전’에서 진행되었다.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부 안내

존경하는 임원 및 일가여러분!
임원 및 일가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운영회비와 종보구독료는 청주한문 100만 종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중앙종친회의 운영 재원입니다.
임원 및 일가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계좌송금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 종보에 첨부된 지로용지 이용 (입금자 성명 및 주소 등 기재)
- ▲ 성함만 명기하여 송금한 경우 중앙종친회로 연락 바랍니다. (동명이인 다수)

청주한씨중앙종친회 (02) 720-6370/1)